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 빨라진다

최대 걸림돌 요양병원 철거 시작
역사공원·백화점·호텔·아파트 등
사업자, 추석 전후 개발계획 제출
6000억원대 토지 잔금 지급키로



근대 산업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역사문화공원과 백화점, 호텔, 아파트 등을 짓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광주시 북구 임동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부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구 도심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부지 내에 역사문화 공원을 비롯한 백화점과 호텔, 아파트 등을 짓는 개발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측은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업지내 요양병원 철거작업(본보 2022년 8월 22일자 6면)이 시작됨에 따라 추석 전후로 광주시에 세부 개발계획(안)을 제출하고, 6000억원대 규모의 토지잔금 지급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다만 광주시의 개발업체간 아파트 신축 세대수 조율, 문화복합물 '더현대 광주'의 복합쇼핑몰 반영 여부, 주변 소상공인 대책 및 교통난 해소 문제 등 해결과제도 수두룩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방·일신방직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회사(MBN프라퍼티+휴먼스홀딩스)는 2020년 7월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전방(16만 3268㎡)과 3660억 1400만원, 일신방직(14만 2290㎡)과 3189억 8600여만원에 공장부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0%에 해당하는 360억 1400만원과 318억 9000만원을 지급했다. 양측은 당시 잔금 6170억 9600만원에 대해서 전방·일신방직 내 영업중인 요양병원 등 시설물 전체의 명도절차 완료 후 안납하기로 합의했다.

개발업체는 최근 명도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3개월 내로 잔금을 모두 치를 예정이며, 올 추석 명절(9월 9~12일)을 전후로 광주시에 세부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업체측은 애초 이달말까지 세부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시가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됐던 '복합쇼핑몰' 관련 입장을 추석 전까지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시의 일정에 맞춰 계획안 제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이 포함돼 있는 곳으로, 그동안 공장가동 등으로 개발을 하지 못해 광주 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힌다.

개발업체측은 일단 세부 개발계획(안)에 그동안 광주시에서 협상조건으로 내세웠던 공장부지 내 해방 이전 주요 시설물 원형 보존, 신·구 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 조성(대형 유통센터, 특급호텔 등),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익 사회적 공유·합리적 배분 방안 등을 대부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부지내에 문화·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방직 산업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공원'을 조성하고, '더 현대 광주'를 중심으로 쇼핑, 문화와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한 테마파크형 복합쇼핑 타운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광주시는 개발업체측이 세부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본격적인 본 협상진행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본 협상은 감정평가부터 협상조정협의회,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이행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본 협상 진행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특히 아파트 세대수 등을 놓고 광주시와 개발업체간 입장차가 커 이번 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업체측은 아파트 개발 규모를 최소 4500세대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광주시 내부에선 아파트 등 주거 위주 개발보다는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의 융복합 개발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의견 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발업체 관계자는 "단순 계산시 상업용지는 1만㎡당 아파트 300세대 정도를 신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지(30만㎡)는 산술적으로 따지면 최대 9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광주시에서 협상조건으로 제시한 근대 산업문화 유산 보존, 이익 사회적 공유·합리적 배분 방안 등을 충족하고, 최소한의 개발 이익을 내기 위한 최소 규모의 아파트만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디지털 초·중·고급 인재 100만명 키운다

교육부, 2026년까지

초중등 정보수업 두 배 확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의 정보수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늘려 2022년~2026년까지 5년간 모두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

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정보선택과목 도입, 중·고교 개설과목 확대,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화를 통해 정보교육 수업시수를 늘린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는 정보수업을 34시간 이상(현행 17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현행 34시간) 편성하게 된다.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디지털 인재는

약 9만9000명이었다.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2022~2026년 5년간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길러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디지털분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반도체 부문에 적용하던 규제 개선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AI·메타버스·사이버보안·빅데이터 등 디지털분야 대학원도 늘린다. 21개 분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SW중심대학도 100곳을 지정해 첨단분야 전공 인력을 늘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환율 1340원 돌파

당분간 달러 초강세 지속 전망
전문가 "1400원까지 오를수도"

22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30원대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22일 하루 새 1330원에 이어 1340원까지 연이어 '빅 피겨'(큰자릿수)를 깨고 급등한 가운데 당분간 달러 초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올해 안에 14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런 달러로의 쏠림 현상은 일시적이고, 향후 상승 속도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무려 9.6원 올라 개장하면서 1330원을 넘어선 달러당 1335.5원에 개장했다. 이후 1330원대 후반에서 횡보하던 환율은 오후 1시 52분께 1340.2원까지 튀어 오르며 고점을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과 134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닦혔던 2009년 4월 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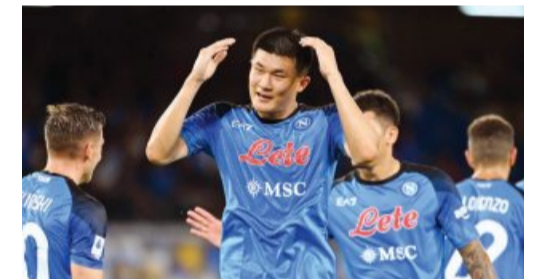
이후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13.9원 오른 달러당 1339.8원에 마감했다.

최근 환율은 빠른 속도로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6월 23일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섰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6일과 15일에 각각 1310원, 1320원을 돌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문화 인프라 등 삶의 질 떨어진다 ▶ 6면

김민재, 세리에A 데뷔골...수비도 만점 ▶ 18면



굿모닝 예향 - 제주 정착 문태준 시인 ▶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보닌 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라면배우(피부)영양연구원(서울) 시험기간: 2021.03.08(09)~2021.05.08(09)